

문화광장



김준기 미술평론가

예술은 유일한 원본의 가치, 즉 진본성과 일품성을 토대로 배타적 가치를 축적해왔다. 예술비평 용어로 쓰이는 아우라(Aura)라는 말은 예술작품에서 풍기는 고상하고 품격있는 분위기를 뜻한다. 발터 벤야민이 저술한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은 전근대 시...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데이터 아트 시대

는 다르게 보이도록 만드는 아우라가 근대시대에 사진의 발명 이후 점점 고유의 에너지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 벤야민의 논지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논의가 근대적 예술개념을 옹호하려고 새로운 예술생산 체제를 부정한다거나, 사진과 영화의 등장 이후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환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예술생산 방식, 그러니까 대량 생산 체제를 도입하는 예술,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결합한 예술을 어떻게 성찰할 것인지를 예비적으로 논거한 것이다. '기술복제'라는 번역은 독일어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라는 말을 옮긴 것인데, 영어로는 'Mechanical Reprodu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기술적인 혹은 기계적인 재생산'을 뜻한다.

원저자의 뜻을 정확하게 풀이하자면, '기술복제시대'라는 용어의 핵심은 인간의 손을 직접 거치지 않고도 '기술에 의해서 재생산이 가능한 시대'라는 뜻을 담고 있다. 기술기계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의 향배에 관한 벤야민의 예측은, 그러나 디지털복제시대를 맞이하여 뜻밖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 방향은 두 가지다. 1) 디지털복제에 의해 원본의 아우라가 더욱 가치를 발현할 것이라는 쪽과 2) 디지털문명은 복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므로 독점이 아닌 공유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쪽으로 나뉜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이러한 입장은 대략 공존하는 듯했다. 어느 쪽이든 디지털문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유도적 아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또 다시 판이 바뀌고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을 대체하다 못해

현실과 가상의 관계를 역전시킨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의 NFT기술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뒤쫓는다.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인 블록체인의 기술은 예술작품 거래 수단으로도 쓰인다. 이 대목에서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다. 뱅크시 작품의 컬렉터가 NFT 이미지 등재 후, 아날로그 원본을 없애버림으로써, 디지털 데이터의 값이 폭등한 것. 세상에나, '아날로그 원본'은 사라지고, '디지털 원본'만 살아남은, 가짜 같은 진짜가 나타났다. 어느덧 가상화폐를 넘어 가상예술작품이 거래되는 시대다. 예술작품의 아우라를 대체하다 못해 역전시키는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데이터 아트'라니, 디지털문명의 근본 패러다임조차 뒤엎는다는 역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설

원 지사 조기 사퇴, 도정 공백 최소화 해야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기 사퇴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사실상 시작되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원 지사는 그동안 지사직 사퇴 입장만 밝힌 채 그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왔다. 지난달 2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데 이어 27일에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원 지사가 계속 미뤘던 지사직까지 사퇴하면서 대권 행보에 본격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권교체에 나서기 위해 도지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도민과 약속한 임기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어떠한 꾸짖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2018년 지사 재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도민만 바라보겠다"며 대권 도전은 없을 것이라던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원 지사는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져야 한다"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사퇴 이유로 들었다. 이제 원 지사의 사퇴로 도정 공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우선 급격히 확산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물론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겪은만큼 시스템에 따라 방역위기를 잘 관리할 것으로 믿는다.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갈등은 여전히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아 더욱 우려된다. 제2공항 문제에 편향된 시각을 가졌던 원 지사가 사퇴하면서 새로운 불파구가 마련됐으면 한다. 특히 정치력이 요구되는 국비 확보 작업 역시 구심점을 잃어 얼마나 성과를 낼지 걱정스럽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을 정책이슈로 만드는 것도 큰 과제다. 아울러 선출직 수장의 사퇴로 공직기강이 흐트러질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제주도정은 엄중한 상황을 맞은만큼 솔선 수범해 도지사 공백사태를 차질 없이 메워나가야 한다.

열린마당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에너지바우처



고은하 제주시 도무동

저소득층의 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바우처가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해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돼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연약 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인 사람으로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위임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데 1인 가구 기준 9만6500원부터 많게는 4인 가구 기준 19만1000원을 지원해 준다. 이 외에도 에너지바우처는 선풍기나 전기장판이 고장난 가구를 동마다 한 가구씩 발급해 새로운 것으로 지원하거나 수리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거주하거나 시스템상의 이유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가구가 있다면 검토를 통해 금액을 환급해주는 환급형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어 에너지 사용에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층 가구들을 다방면으로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액이 다소 적은 점,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고 홍보가 부족해 대상자들이 쓰기 어려운 점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문 취약 해소를 위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 해결 방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홍보해 더 많은 사람들의 집이 시원하고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당 대표 산하 대선후보 검증단 운영

국민의힘 원 지사도 포함

○...국민의힘이 당 대표실 산하에 대선 후보 검증단을 꾸리기로 해 예비후보들에 대한 본격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증단은 10명이 넘는 당내 후보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될 예정인데, 예비후보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역시 검증 대상에 포함.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이 시작되면 검증 공방이 치열해지는 만큼 자체 검증기구를 꾸려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 부미현기자

행정명령에도 위반 잇따라

○...지난달 26일부터 이호태우해변내 음주·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됐지만 위반사항 등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단속에 비상. 제주시는 지난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달 1일 야간시간대 방역수칙 위반 단속현

장을 계도 점검, 음주 및 취식단속 15건을 비롯 총 22건을 적발.

이날 단속현장을 방문한 안동우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끊이지 않는 만큼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른 시일내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를 당부. 이윤형기자

지원청, 안전한 급식 안전

○...시교육지원청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운영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식재료 납품업체 모니터링을 진행.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6일까지 제주시 관내 16개 사립 유치원을 불시 방문해 식중독 및 감염병 사고 예방을 위한 급식 위생·운영관리 실태를 점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모니터링을 구성해 오는 13일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18곳을 방문, 2학기에도 우수한 품질의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 오은지기자

코로나19 진정, '집단 모임' 단속에 달렸다

도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7월들어 연일 두 자릿수 발생은 '집단 모임'을 막는 조치에 한계를 지닌 현실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게스트하우스내 '즉석만남'도 '파티'로 간주돼 단속케 이은 일반음식점 유흥성 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돼 감염확산의 '고리' 차단에 효과를 낼 지 주목된다. 도내 확진자는 지난달 6일 19명, 8일 31명, 20일엔 하루 최다 41명, 31일 20명을 기록하며 12일 연속 두 자릿수라는 신기록 행진중이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과 도민들의 집단 모임이 감염확산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모양새다. 그만큼 감염 확산이 여전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는 집단 모임 단속이 중요해졌다. 도민 다수가 생명에다 생계까지 위협받는 현실에 자제해야 할 집단 모임을 버섯이 하는 행위를 용납

해선 안된다. 최근 감염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이용객들간 '즉석만남'행위가 단속 가능케 된 점은 시의적절하다. 숙박시설 만남 앞선 행위가 그간 금지해 온 '파티'로 보고 제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구좌 애월 조천읍 게스트하우스를 감염고리로 한 연쇄 감염 발생에 도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상황이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상황에도 일반음식점 등에서 유흥성 불법행위로 감염병에 방법 등을 위반한 업소가 계속 나오는 현실도 우려된다. 도 방역당국과 경찰은 집단 모임에 의한 방역수칙 위반 단속에 총력 나서야 한다. 여럿이 모여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비난받는 시국에 법 위반행위를 방치해선 안된다. 그러잖아도 8월이 백다수가 생명에다 생계까지 위협받는 현실에 자제해야 할 집단 모임을 버섯이 하는 행위를 용납

부고

안성태(표선파출소장) 어머니 광산 김씨 은수(향년 82세)께서 서기 2021년 8월 1일 23시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8월 3일(화요일) ▶발인일시: 2021년 8월 4일(수요일) 오전 6시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3분향실 ▶장 지: 조천읍 충훈묘지 아 들 안성태 며느리 채옥자 성진 강정숙 성철 배후기과내사 딸 안성심 사 위 고희정 ※ 연락처: 안성태 010-8661-9360

부고

양태혁(KT 제주고객센터장) 어머니 제주부씨 영애(前 탐라영재관장·향년 70세)께서 서기 2021년 8월 1일 22시 19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8월 3일(화요일) ▶발인일시: 2021년 8월 4일(수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아흔아홉골 선영 남 편 양원석(숙) 아 들 양태혁 며느리 지인선 딸 양윤정 사 위 김용균 ※ 연락처: 양태혁 010-2695-6696 양윤정 010-8936-6689 지인선 010-2699-8325 김용균 010-2615-3546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진주강씨 선옥(향년 85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8월 3일 남 편 고향규 아 들 고흥석 며느리 김귀녀 을석 정재영 딸 고혜정 사 위 김재택 정림 이경현

분묘개장공고(2차)

정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신고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2. 개장 사유: 묘지정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불안기간 4. 개장방법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7. 신고시 구비서류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시원구간 내에 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집행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1년 8월 3일 위 공고인: 토지주 송기택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실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국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계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